

# ‘박지원 밀어주기’ 동교동계 전면에서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경쟁이 증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박지원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동교동계가 똘똘 뭉쳐 총력지원에 나서면서 경선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지난 31일 오전 권노갑 상임고문 등과 함께 박지원 후보의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를 찾았다.

이 여사는 이 자리에서 “내가 당사를 방문한 게 남편이 대선에서 이겼을 때 수고한다고 인사한 데 이어 두 번째”라며 “이번에 꼭 되셔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 여사는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대의원대회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달 17일에도 박 후보에게 전화해 “오전에 조경태 의원이 다녀가면서 ‘꼭 박지원의 당선을 위해서 전국을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고 했으니, 당선될 것”이란 전화를 했다.

이 여사의 이번 선거캠프 방문은 박 후보의 공개 지지 선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아가 동교동계 전체가 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호남정치 복원’을 목표로 박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동교동계 좌장’으로 불리는 권노갑 상임고문이 캠프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김옥두 전 의원도 총괄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있다. 또 이훈평·윤철상·박양수·김병림 전 의원 등도 박지원 후보 캠프에 참여하면서 문재인 후보에 맞서 비노(비노무현) 전선을 형성했다.

이처럼 동교동계가 똘똘 뭉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으로, 이 배경에는 권고문과 박 후보가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면서 가능해졌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애초 권고문과 박 후보는 ‘동교동계 적자’ 논란을 낳을 정도로 불편한 관계였다. 특히 동교동계 인사들은 DJ 타계 전부터 박 후보가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 31일 오전 당권에 도전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후보의 여의도 캠프를 방문해 박 후보를 격려했다. /연합뉴스

## 이희호 여사·권노갑 고문 등 박후보 선거캠프 방문 공개 지지

## 이훈평·윤철상·박양수 등 총출동... ‘호남정치 복원’ 중대 변수

를 독식한다’는 불만을 표했었으며 실제로 DJ 입원 당시 동교동계 가신그룹들의 면회를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복원에는 이희호 여사가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후보는 당 대표 출마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이 여사를 찾아 당 대표 출마 결심을 전하고 권고문과의 화해를 적극 중재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 여사는 지난 연말 자리를 마련했고 두 사람은 ‘호남정치 복

원’을 결의하면서 그동안의 앙금을 털었다.

권고문은 박 후보가 캠프를 치러자 총괄본부장으로 자신의 오른팔 격인 김옥두 전 의원을 보냈다. 이는 사실상 동교동계 인사들에게 ‘박 후보를 지원하라’는 신호를 받아들여졌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1일 “동교동계가 ‘호남정치 복원’을 기치로 박 후보를 지원하면서 호남민심이 더욱 뭉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류는 박빙의 당권 경쟁에서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朴대통령 지지도 새해들어 급락 한달간 11%P 빠져 20%대로

“콘크리트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새해들어 3주만에 지지도가 무려 11% 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주간 단위로는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져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30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29%는 긍정 평가했고, 63%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3.1%포인트의 신뢰수준이라고 갤럽 측은 밝혔다.

박 대통령 지지도(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이달 첫 주만 하더라도 40%를 기록했다. 이에 비춰보면 새해들어 3주만에 지지도를 무려 11% 포인트나 까먹은 셈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작년 한 해 동안 4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며 고공비행해왔으나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이 불거지면서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 12월 셋째주 처음으로 40%벽이 무너졌다. 이어 해가 바뀌면서 이달 첫째주(9일) 40%로 반짝 반등했으나 이후 다시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둘째주(16일)에는 35%, 셋째주(23일)는 30%로 내려 앉았고 30일에는 29%로 심리적 지지선으로 간주됐던 ‘30%선’마저 무너졌다.

반면에 박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달 첫째주 51%에서 넷째주에는 63%로 12% 포인트나 불어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 박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0% 이하, 부정 평가는 70%를 웃돌았고, 50대도 긍정 34%, 부정 60%로 3주 연속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가운데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60세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55%)가 부정평가(36%)를 앞섰다. /연합뉴스

## 자은 ‘정책 엇박자’

## 당·정·청 조율강화

### 靑수석비서관·장관 참여 ‘정책조정협의회’ 구성

청와대가 자은 정책 엇박자에 당정청간의 조율 강화에 나섰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협의회’가 1일 구성돼 당정청간의 정책조율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정부내 협의부재에 따른 정책 입안과 추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교육지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휴일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과 청와대 정책 관련 수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조정강화 관련회의’를 열어 앞으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또 청와대 내부에는 정책조정수석 주재로 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수석과 비정책분야의 정부·홍보 수석까지 참석하는 ‘6+2’ 체제의 주례 정책점검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청간 소통과 협조체계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들 회의의 신설 및 당정청 협력 확대 방안 마련 배경에 대해 “정책조정수석실 신설 등 청와대 개편을 계기로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 및 조율을 강화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주영 의원

새누리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3선인 유승민 의원과 4선의 이주영 의원이 대결하는 이번 경선은 지난해 7·14 전당대회에서 비주류가 지도부를 장악한 이후 뼈격겨려온 당권 관계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적어도 원내 지도부만큼은 친박(친박근혜)으로 채워져 왔지만

## ‘친박’ 이주영이나 ‘비박’ 유승민이나

### 새누리 오늘 원내대표 경선... 당·청관계 분수령

‘비주류 대 신주류’의 대결로 인식되는 이번 경선에서 비주류 후보가 당선되면 당청 관계는 일대 원정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주류 측 후보가 당선되면 당과 청와대의 관계는 안정적 기반과 협조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점진적 변화와 소통 강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은 김무성 대표와 마찬가지로 ‘원조 친박’임에도 비주류로 분류돼 왔고, 정책위의장 리영 메이트인 4선의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 역시 비주류여서 전형적인 ‘비주류 조합’

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반면 중립 성향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얻으면서 ‘신주류’로 부상했고, 리영 메이트인 3선의 홍문종 의원은 신주류의 기존 대표 주자 중 하나다.

한편, 두 후보는 1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들의 막판 표심을 공략했다.

유 의원은 “2년간 대통령도 잘하지 못했고, 우리 당도 잘하지 못했다”면서 “당선된다면 즉각 총선을 향한 민생 정책의 과감한 변화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회견에서 “민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역량이 있지 않나. 경험과 내공이 쌓여 있다”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쓴소리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이러한 쓴소리가 필요한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승민 의원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교육안내  
· 교육기간: 2015년 2월 16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주간반 오전 9:00~1:20 / 야간반 오후 6:00~10:2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10,000원

원서접수 ~ 2015년 2월 6일(금)  
문의할 곳 062)605-1112, 1023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모집

지원자격: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사모  
수업형태: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교육일시: 2015년 3월 5일 개강  
제출서류: 입학원서(사진 3x4cm 2매) 1부  
혜택: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광신대학교  
여자신학원 (여전도사과정) 모집

지원자격: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수업형태: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교육일시: 2015년 3월 2일 개강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제출서류: 입학원서(사진 3cmx4cm 2매) 및 담임교회추천서 1부  
혜택: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문의할 곳 062)605-1063, 1112

광신대학교  
목회자심리상담사과정 모집

지원자격: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수업형태: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교육일시: 2015년 3월 5일 개강  
제출서류: 입학원서(사진 3x4cm 2매) 1부  
혜택: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